

주가	환율	금리
+2.22	-6.00	-0.02
1,373.65 (코스피지수)	949.80원 (원/달러)	4.65%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87.27	(-0.16)
다우(25일)	12,134.68	(+6.80)
나스닥(25일)	2,356.59	(+11.75)
닛케이	16,811.60	(+112.30)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8.64엔	(-0.48)
유로 달러 환율	1.2626달러	(+0.53)
3년만기 회사채	4.95%	(-0.02)
클레리	4.46%	(-0.02)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

국정원 광주지부 산업보안협의회

국정원 광주지부가 주관하는 첨단기술보호 산업보안협의회가 26일 여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사무실에서 열렸다.

여수권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 경제단체 등의 보안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스파이 기술유출사건·사례소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대책 제시, 기술유출사건을 드라마로 표현한 영상물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정원은 첨단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2004년부터 광주·목포·여수 등 3권역으로 나눠 산업보안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유전펀드 1호’ 운용·판매사

‘한투 컨소시엄’ 선정

한국석유공사는 유전개발 1호 펀드의 운용 및 판매 회사로 한국투자신탁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한투운용 컨소시엄은 한국투자신탁운용(자산운용사),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기업은행(이상 판매회사)으로 구성돼 있다.

한투운용 컨소시엄이 제안해 채택된 유전개발 1호 펀드의 운용계획에 따르면 펀드 모집 규모는 2천억원 이고 펀드는 100%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된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광구는 베트남 15-1광구의 흑사자유전 남서부 지역이고 펀드 존속 기간은 5년 만기이며 펀드는 다음달 하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이후 증권사와 은행 창구를 통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實利가 없다

시공 품질보단 브랜드만 따져

- 1 “외제·대형차면 최고”
- 2 명품없으면 ‘짜퉁’이라도?
- 3 “아파트 이름 바꿔주세요”
- 4 외면당하는 중고시장
- 5 화순 로즈베이커리의 교훈

입주민, 가격·편의성·품질 고려않고 외형만 중시

집값·이미지 상승 노력 사이름 나오면 개명 요구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자사 아파트의 ‘이름’ 변경을 놓고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 광주시 북구 D지구의 주공 ‘뜨란체’아파트 계약자들이 새 브랜드인 ‘휴먼시아’로 변경해달라며 집단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주공측은 이달중 설 문조사를 통해 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품의 외형을 증시하는 ‘겉치레’ 소비 성향이 최근 주택건설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롯된 아파트 ‘브랜드 붐’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번져 가격이나 생활의 편리함 등을 따지기 이전에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기에 이른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선

호 현상은 해당 건설사가 어렵게 돼 내실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명성만 고려, 맹목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또한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규 브랜드로 개명을 요구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가 하면 건물의 구조나 등기부등본 등의 변경 없이 ‘겉모양’만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A아파트의 경우 몇년전 아파트 건설회사가 어려워져 주택사업을 다른 곳으로 넘겼음에도 예전 명성만을 고려한 고객들이 A사 브랜드만 보고 여전히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브랜드 변경으로 집값 상승효과를 본 곳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기존 ‘삼

성’아파트 대신 ‘래미안’으로 변경한 이후 광당 수천만원이 넘는 집값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광산구 신창동의 L아파트가 V아파트로 변경했으며, 서구 치평동 K아파트도 Y아파트로 간판을 바꿔다는 등 ‘개명 바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브랜드를 둘러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랜드 모방 아파트’의 등장이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삼성의 ‘래미안’을 본 따 ‘래미안’이란 이름의 아파트가 분양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에는 전남지역에 ‘래미안(來美安)’과 한자 어감이 비슷한 ‘래인보우(來人保宇)’아파트가



분양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업체의 승인이나 건물구조, 건축물 대장 등의 변경 없이 기존 아파트의 ‘이름’만 바꾼 경우도 문제다. 광주의 경우 지난 4월 북구 두암동의 J아파트는 업체의 승인 없이 G아파트 이름을 바꿨으며, 서구 금호동 S아파트도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채 벽면 도색을 통해 K마을로 변경했다. 하나의 아파트

에 ‘이름’ 두 개가 생긴 셈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이름표만 바꿔단 아파트는 값싼 시계가 최고급 명품 시계로 둔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소비자들이 브랜드만 쫓을 게 아니라 가격, 편의성, 실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택해야 오랫동안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한통운, 호남허브터미널 가동

광주남구 송하동에 전국택배시장 공략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이 26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에 호남허브터미널을 준공하고 전국택배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날부터 공식운영에 들어간 호남허브터미널은 지상 5층, 연면적 3천평 규모로 3개층의 창고를 갖춰 하루 4만 박스의 택배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택배물량 분류능력 강화와 함께 호남고속도로 및 광주 제2외곽순환고속

도로에 인접해 있는 등 입지도 좋아 지역 분류작업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으며, 도서지역 신속 배송도 가능해졌다.

또 대한통운은 올해 안에 여수, 대구지역의 지역터미널을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역의 수도권메인허브터미널을 완공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노후가 축적돼 있는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방식의 택배운영시스템을 통해 현재 98%에 달하는 익일배달율을 9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주시-CJ 등 5개 홈쇼핑업체 ‘광주우수상품’ 판로 확대 협약

광주시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농수산·CJ·GS·우리·현대 등 5개 홈쇼핑업체와 ‘광주지역 우수상품’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5개 홈쇼핑사는 광주시가 추천하는 우수상품을 안정적인 공급망과 광주시로부터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광주 소재 기업들의 우수상품을 홈쇼핑사에 제공, 판로확대 및 시장개척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6~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문화창의전’에 상품전문가를 상주시켜 광주시와 홈쇼핑에 출품할 상품을 선별할 계획이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가치창조 기업 경영 광주은행 대상 영예

광주은행이 ‘2006 대한민국 가치창조 기업대상’에서 종합·서비스·금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은 26일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 정태석 은행장이 참석,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치창조 기업대상은 가치창조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 재생에너지생산 전문투자사 탄생

신 재생에너지 생산 전문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한국광기술원 입주업체인 (주)솔라텍코리아(대표 정희환)는 전력 판매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경영방식을 도입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솔라텍은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

립, 내년부터 15년간 전력을 공급기로 한국전력과 ‘에너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남지역 일대의 부지 매입에 착수했다.

이어 2007년 400억원을 투입해 500kW급 태양광발전소 10개를 설립하고 2008년에도 400억원을 투입,

솔라텍 코리아 투자자 모집 한전에 15년 전력공급 계약

500kW급 10개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정희환 대표는 “2008년까지 20개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 100억 매출이 가능하다”면서 “전남지역 3천 세대에 환경오염없는 신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췌! 췌! 췌! 애들은가라!!

김수희

오늘출연

광주 상무 나이트

(성주지구 롯데마트 뒤편)

신명안나

안녕하세요. 신명안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text continues in columns)